

저는 2019년도에 인천지역대 보건환경학과에 입학한 이해영입니다.

복합화학물질 과민성 천식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하게 되어 이 참에 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겸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았으나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 불안하던 차에 OT를 참여하고 스터디모임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19학번 스터디 모임은 그렇게 “졸업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를 슬로건으로 삼고 ‘휴학따위는 없다.’, ‘등록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만으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서로 볼 수 없게 되어 흐지부지 될 뻔했지만, 3학년 1학기에 편입하신 분들의 에너지를 수혈받아 이제는 ‘이왕 졸업할 거라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자!’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터디모임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터디 모임 : 졸업할때까지~~~~

강영숙	201936-159305	이정화님은 저희 스터디의 엔진입니다. 아무도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절대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구요, 강영숙님은 저희 총무님으로 학교 공식행사에 참여해주셔서 4년 내내 저희 대외업무를 암암리에 담당해주셨어요~ 김수영님은 저희 막내구요~ 조용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지만 한 번 하기로 한 것은 결국 해냅니다. 김유익님은 저희 브레인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방 똑똑 해결해주세요! 박영철님과 우태진님은 삶을 즐길 줄 아는 신세대예요~ 그러면서도 내실을 튼튼히 하기 위해 편입하셨는데, 일과 삶을 대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이순옥님은 저희 스터디의 자랑이에요~~ 1학년 2학기 입학이신데 이번에 조기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향숙님은 부족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청 너무너무 바쁜 직장생활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신 정신력의 화신입니다. 한영국님은 생각의 속도가 남다르신 데다 모든 경험을 연륜이라는 무기로 장착하셔서 잘 사는게 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현희님은 모두가 불가능한거 아니냐고 해도 멈추지 않고 끝내 해내는 분이세요~ 전 이런 분들과 무언가를 함께 해냈다는게 정말 영광입니다.
김수영	202136-369800	
김유익	202136-369804	
박영철	202136-369799	
우태진	202136-369797	
이순옥	201936-159630	
이정화	202136-369803	
이향숙	202136-369831	
이해영	201936-159301	
한영국	202136-369830	
함현희	202136-370583	

3학년 2학기 입학이신 함현희님과 행정학과 복수전공학점이 조금 부족한 저는 다음학기에 졸업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학교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먼저 몰라봤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건환경학과는... 어렵습니다. 교과내용도 어렵지만, 그 외 것들도 어렵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면 분수의 계산, 비례식 등등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 [보건환경학과 유치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과 커리큘럼에 넣을 수는 없으니 이는 각 지역대의 학생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마련하였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이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들을 같이 보내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 봄을 위해 함께 달려온 [졸업할때까지~] 식구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같이 졸업을 하지는 못하지만 분기마다 만나기로 한 약속 꼭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